

의·집단이기주의에 편승하여 당선만 되고 보자는 구태의연한 남발성 공약(空約)의 말만 잘하는 후보자는 설자리를 잃고 말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선택하여야 할 후보는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는 후보를 선량(選良)으로 선택하여 귀중한 주권 행사를 하였으면 한다.

첫째 : 대통령 공약 사항인 사료 부가세 전면 영세율 적용 뿐만 아니라 모든 사료 원료인 단미사료에까지 확대 적용하여 줄 선량

둘째 : WTO 체제에서 이윤추구에 혈안이 되어 저세율 관세의 허점을 이용한 혼합분유의 무분별한 수입으로 낙농가를 기만하는 행위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선량

세째 : 낙농진흥법 개정과 같은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으로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선량

네째 : 전국토의 70%인 산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축산단지화에 필요한 규제완화와 환경적합형 축산기반 시설지원이 가능토록 노력할 선량

다섯째 : 잘못된 우유논쟁으로 낙농가만 피해자가 되고 있는 분유체화 현상과 같은 농수산물의 수급과 가격안정을 위한 정책 지원이 가능한 선량

이외에도 빠진 것이 많이 있겠지만 선량의 애국충정에 기대하면서 끝으로 정당간, 지역간의 이해관계에서 상호신뢰와 균형 잡힌 조화속에서 생산성 높은 국정 운영이 될 수 있는 의사당의 모습을 그려본다.

농민과 농촌(농업) 발전을 위하여 이런 후보를 선택하자



이 상 섭
강원도지회장

지금도 묵묵히 양질의 우유를 생산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전국의 낙농가족과 어려운 난관에도 불구하고 농촌을 지키는 영농후계자들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이다.

지난 한해 우리는 세계화의 구호와 역사 바로세우

기의 소용돌이 속에서 엄청난 정치적 이념의 갈등과 어려운 경제난을 체험하였다. 게다가 우리 낙농인의 요구보다 미흡한 유대인상과 낙농진흥법의 개정이되지 않은 채 새해를 맞이하고 말았다.

물론 실망스런 마음이 컸지만 설상가상으로 낙농인

모두에게 잊혀지지 않는 결코 잊어서도 안되는 사건이 있었다. 바로 고름우유 사건이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상대방을 무참히 짓밟는데 주저하지 않은 기업인의 양심을 우리는 똑똑히 목격하였다. 물불을 가리지 않는 이 싸움으로 우유 소비량은 급감하였고 소비자들의 우유에 대한 불신감만을 증폭시켰다.

그 결과 전국의 낙농인은 엄청난 정신적 물질 피해를 감수해야만 하였다. 우리는 이 사건을 교훈삼아 위생적이고 건강한 우유생산을 위해 서로 화해하고 양질의 우유를 생산하는데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할 시점에 있다.

WTO체제 이후 전개될 국가간의 무한경쟁시대에서 우리 낙농인의 생존을 위한 최선의 정책이 무엇이며 이의 실현을 위한 우리의 자세와 선택은 무엇인지 심사숙고하여 생각해 볼 때가 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다가오는 제15대 국회의원 선거는 매우 중요하고 우리의 순간적인 선택에 한국낙농산업의 미래가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번 선거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는 진지하여야겠다. 과거처럼 사사로운 지연이나 학연, 인맥에 사로잡혀 감정이 개입된 투표를 해서는 안되겠다. 우리의 이성은 우리 낙농인의 미래를 확실하게 보장해 줄 수 있는 정당은 어느 정당이며,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인물은 누구인지에 모아져야 한다. 또 우리가 선택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도 세밀하게 검토·분석하여 그들을 질타하는 것도 잊어서는 안되겠다. 또한 특정 정당후보 간판만 달고 나오면 당선되었던 과거의 선거 모습을 아무런 흔적없이 재연한다면 우리의 최소한의 요구사항은 영원히 하나의 구호로만 남을 것이다.

금번 선거에서 우리 낙농인의 요구사항을 각 정당과 입후보자들은 어떻게 설명하는지, 과연 공약은 실천 가능한 것인지 또 우리의 요구사항과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한국낙농우유협회, 축협 관계자들은 엄밀하게 분석하여 전국의 낙농인에게 홍보하는 길이 선거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진정코 우리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인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 한국낙농우유협회와 축협, 유가공업체, 학계의 대표자들은 한국낙농산업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각 정당으로 보내 그들에게 한국 낙농산업의 현안을 올

WTO체제 이후 전개될 국가간의 무한 경쟁시대에서 우리 낙농인의 생존을 위한 최선의 정책이 무엇이며 이의 실현을 위한 우리의 자세와 선택은 무엇인지 심사숙고하여 생각해 볼 때가 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다가오는 제15대 국회의원 선거는 매우 중요하고 우리의 순간적인 선택에 한국낙농산업의 미래가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번 선거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는 진지하여야겠다.

바르게 파악하게 하고 올바른 정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일깨워 주어야 합니다.

시들어져 가는 한국낙농산업에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을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싶다. 물론 우리 낙농인의 단결된 모습과 중단없는 기술개발에의 의지가 영원하다는 전제하에서 가능하겠다. 이제 우리도 국민소득 만달러 시대에 들어섰다. 구태의연한 기존의 사고의 틀을 하루빨리 떨쳐 버리고 새로운 시대조류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각자가 노력해야 한다. 잘못된 것은 감추기 보다는 떳떳하게 사과하고 모든 경쟁은 경제원칙에 기초를 두고 지속적인 품질개선을 위한 연구와 시설투자에 인색하지 않을 때 우리 낙농산업은 발전할 것이다.

이를 위해 외면한 소비자의 관심을 되돌리고 불신을 신뢰로 바꾸기 위해 고름우유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그 진상을 밝히고 더불어 낙농인의 자정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우리 스스로 적극적으로 과거의 모습에서 탈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탈피하는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한국 낙농산업의 발전 속도는 빨라질 것이다. 우리 농민은 흙과 같이 살아왔다. 흙과 농민은 밀접한 관계가 있어 땀흘린 것 만큼 그 댓가를 받고있는 것이다. 농촌이 농민의 인력난으로 휴경지가 생기고 있는 것도 농민에 뒤편이 되는 것이다. 아무쪼록 살기 좋은 농촌건설에 힘을 쓰자. 1차 산업이 맥이 끊기면 그 나라는 오래가지 못한다는 일념으로 우리 농민이 지키고 가꾸어 후손에게 물려주자.